

## 교직원의 공무상 요양급여제도 이용 현황

이희우<sup>1</sup>, 신선미<sup>2\*</sup>, 김주자<sup>3</sup>, 강세원<sup>2</sup>

<sup>1</sup>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sup>2\*</sup>일리노이주립대학교 간호대학  
<sup>3</sup>순천향대학교병원

###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of School Personnel on Duty

Hee Woo Lee<sup>1</sup>, Sun Mi Shin<sup>2\*</sup>, Joo Ja Kim<sup>3</sup>, Se Won Kang<sup>2</sup>

<sup>1</sup>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Korea

<sup>2\*</sup>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S.A.

<sup>3</sup>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Korea

#### 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of school personnel on duty in Seoul.

**Method:** The subjects were 551 workers unde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male 301, female 250) who got medical care benefits from March 2000 to February 2005.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chi-square test, and t-test by SAS package 9.12 were used.

**Result:** The results show that elementary school personnel got the highest ranking, 314(57.0%). Among subjects, 57.2% personnel got accident when they were working on their own duty, 21% during school events and 13.5% were during commutes. They got medical care from orthopedics 75.9%, neurosurgery 7.6%, dental 4%, and 8 male and 2 female died during these days. The most frequent diseases of males and female were fracture and joints related disease. The reason of most health problem was due to injury(92.3%).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tinuous health care services like regular health check for school personnel, or social safety network to prevent injury are needed.

Key words: school personnel, medical care benefits, on duty

---

(2008년 12월 4일 접수, 12월 14일 채택)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 from 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2007

\* Corresponding author: Sun Mi Shin, PhD. Office of Global Health Leadership,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845 South Damen Eve. Chicago, IL, USA. Tel : 1-773-469-3269 Fax : 82-2-311-1207  
E-mail : healthteam@hanmail.net

## I. 서 론

###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공무원 및 교직원이 공무 또는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 폐질 등이 발생하였을 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상 요양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퇴직뿐만 아니라 공무상 건강문제에 대해 적정급여를 함으로써 공무원 및 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관리법, 2008).

공무원 및 교직원의 공무상 요양제도의 실질적 이점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제도와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본인 일부 부담금)와 비급여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액제에 대하여 요양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상요양급여는 산재보험과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요양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간병비 및 이송비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어 공무원 및 교직원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김수배, 2005).

그러나 공무상요양급여는 공무와 관련된 사망 또는 질병 및 부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공무의 해석 범위를 보면, 공무원 및 교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되었거나, 공무수행의 연장행위, 근무 상황적 요인과 관련한 발생,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이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다. 그러나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인한 질병 및 부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거나 의학적으로 당해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8b).

실제 공무상 사망인 경우 장기급여인 유족급여가 있으며, 공무상 발생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급여이면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공무상요양비가 있고, 그 외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공무상요양일수가 있어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2008a). 이처럼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안정된 보장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복리 향상을 도와야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교직원에게 공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건강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제도의 재정안정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무상요양급여에 대한 연구는 사회 보장과 관련하여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일부 연구(김진수와 이철수, 2004)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건강문제, 의료이용의 구체적 현황을 알 수 있는 연구는 아주 드물어, 교직원의 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방안이나 공무상요양 대상자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무상요양급여제도 이용의 증감추이와 요양급여를 받게 된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공무상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제도 이용현황과 이용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고, 요양급여를 받게 된 건강문제의 종류와 요양일수를 분석하여 교직원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별, 연도별, 근무지별, 직위별로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빈도를 파악한다.

둘째,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건강문제의 발생빈도 및 발생시 근무상황, 발생 후 방문진료과를 파악한다.

셋째, 공무상 요양급여일수를 성별, 연도별, 진단별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 설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 이용현황과 요양급여를 받게 된 건강문제의 종류, 각 건강문제별 요양일수를 알기 위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2차 자료를 이용한 탐색적 분석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분석변수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 중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개년 동안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승인된 551명(남자 301명, 여자 250명)이다. 그러나 연도별 비교를 위한 심층 분석에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석기준일이 일치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년간 대상자 443명(남자 243, 여자 200)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연령, 소속기관 및 직위 등의 일반적 특성과 발생년도, 발생당시의 근무상황, 건강문제의 종류, 이용 진료과, 의학적 진단별 분류, 요양급여일수 등이다.

## 3. 분석 방법

공무상요양제도 이용현황을 성별, 연령별, 직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개월 단위가 상이한 2000년과 2005년은 제외하고,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등의 제 특성과 요양급여일수, 요양급여를 받은 건강문제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자와 관련 있는 각 변수들의 분포를 보았고, Chi-square 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대상자 특성별 차이 및 요양급여일수를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검정은 SAS 9.12를 이용하였다.

## 4. 용어 정의

- 교직원 :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교직원을 의미한다.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을 의미한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공무원 및 교직원의 요양급여 이용현황은 551명이며, 그 중 남자는 301명(54.6%), 여자 250명(45.4%)이었다. 5년간 연구대상자의 공무상요양급여 발생 당시의

평균연령은 남자는 44.4세, 여자는 41.4세로 남자의 평균이 여자보다 약 3세 많았다.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알기 위해 연령을 5세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45-49세가 가장 많아 남·여 각각 19.1%와 18.9%를 차지하였고, 대상자의 41.8%가 35세부터 49세까지 분포되었다. 근무처별로는 초등학교 314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3명(31.4%), 고등학교 30명(5.4%)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교장 10명(1.8%), 교감 14명(2.5%), 장학사 3명(0.5%), 교사 365명(66.2%)이었다. 그 외 일반직 29명(5.3%), 기능직 130명(23.6%)이었다(표 1).

## 2. 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 연도별 이용현황, 발생 시 근무상황 및 진료과

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 연도별 이용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93명, 2001년 107명, 2002년 92명, 2003년 112명, 2004년 132명, 2005년 15명이었다.

또한 건강문제 발생 시의 근무상황으로는 57.2%가 고유업무 중 발생하였으며, 행사 중 발생이 21%, 출퇴근 중 발생이 13.5% 순 이었다.

요양급여 대상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진료과는 정형외과가 75.9%인 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가 7.6%인 42명, 치과가 4%인 22명 순 이었다(표 2).

## 3. 공무상요양급여대상자의 연도별 건강문제 분류(4개년간) 및 사망자 특성

요양급여가 인정된 연구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4년간 공무로 사망한 대상자는 남자 8명, 여자 2명이었고 폐질은 남자 2명, 질병·부상은 135명으로 남자와 여자 각각 65명(48.2%), 70명(51.9%)이었다. 단순부상은 274명 중 남자와 여자 각각 157명(57.3%), 117명(42.7%)이었다(표 3).

요양급여 대상자 중 사망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 3명, 40대는 4명, 50대 2명, 30대 1명 순 이었고,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2명, 2002년도에 1명, 2003년도에 3명, 2004년도에 4명이 사망하였다. 근무처별로 사망자를 볼 때 초등학교 5명, 중학교는 2명, 고등학교 2명, 시교육청 1명 순이었고, 사망자 건강문제 분포를 보면 심장관련 사망이 4명으로 가장 많고, 뇌관련 건강문제 3명, 간암 2명 순이었다. 사망자의 근무상황을 보면 고유업무 중 사망자가 6명으로 가장

<표 1> 5년간 공무원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연령별, 근무지별, 직위별 빈도

구분	전체		남		여		X <sup>2</sup>	p
성별(%)	551	(100.)	301	(54.6)	250	(45.4)		
연령평균±SD	43.2	±9.8	44.4	±9.2	41.4	±10.1	3.3	.001
연령구분 (%)	20-24세	11 ( 2.0)	1 ( 0.3)	10 ( 4.0)				
	25-29세	48 ( 8.7)	15 (5.0)	33 (13.2)				
	30-34세	54 ( 9.8)	40 (13.3)	14 ( 5.6)				
	35-39세	84 (15.3)	39 (13.0)	45 (18.0)				
	40-44세	96 (17.4)	51 (16.9)	45 (18.0)				
	45-49세	105 (19.1)	57 (18.9)	48 (19.2)			40.2	.0001
	50-54세	72 (13.1)	46 (15.3)	26 (10.4)				
	55-59세	60 (10.9)	36 (12.0)	24 ( 9.6)				
	60-64세	19 ( 3.5)	15 ( 5.0)	4 ( 1.6)				
	65-69세	1 ( 0.2)	0 ( 0.0)	1 ( 0.4)				
	70세이상	1 ( 0.2)	1 ( 0.3)	0 ( 0.0)				
계	551 (100.)	301 (100.)	250 (100.)					
근무지 (%)	초등학교	314 (57.0)	163 (54.2)	151 (60.4)				
	중학교	173 (31.4)	93 (30.9)	80 (32.0)				
	고등학교	30 ( 5.4)	20 ( 6.6)	10 ( 4.0)				
	특수학교	2 ( 0.4)	1 ( 0.3)	1 ( 0.4)			13.2	.43
	교육청 및 기타기관	32 ( 5.8)	24 ( 8.0)	8 ( 3.2)				
	계	551 (100.)	301 (100.)	250 (100.)				
직위 (%)	교장,교감,장학사	27 ( 4.8)	21 ( 7.0)	6 ( 2.4)				
	교사	365 (66.2)	138 (45.8)	227 (90.8)				
	일반직	29 ( 5.3)	19 ( 6.3)	10 ( 4.0)			5.17	.39
	기능직	130 (23.6)	123 (40.9)	7 ( 2.8)				
	계	551 (100.)	301 (100.)	250 (100.)				

많았다(표 4).

질환 21명(4.7%)이었다(표 5).

**4. 공무원요양급여대상자의 의학적 진단(4개년간)**

요양급여대상자의 의학적 진단을 성별, 연도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 등으로 요양급여가 승인된 대상자는 전체 443명중 208명(47%)으로 가장 많았고, 뇌졸중, 뇌진탕은 35명(7.9%), 치과질환 18명(4.1%) 심장마비·부정맥 6명(1.4%), 화상 및 안과관련 질환이 각각 6명(1.4%), 성대결절 3명(0.7%), 정신과관련 질환 1명(0.2%), 기타

**5. 공무원요양급여대상자의 연도별 요양급여일수(4개년간)**

연구대상자의 요양급여일수의 범위는 최소 3일에서 최대 730일로 전체 남·여의 중위수는 60일이었다. 성별 요양급여일수를 보면, 남자는 평균 113.3일이고, 여자는 94.7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요양급여일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도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

었다(표 6).

또한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최고 장기요양급여기간인 730일 동안의 요양급여를 이용한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는 7명이었다.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따른 요양급여일수를 비교해 볼 때, 남자는 뇌졸중, 뇌진탕 등 뇌관련질환의 요양일수가 평균 289.9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간암 및 위암이 요양일수가 평균 197.1일로 나타났다. 여자는 뇌관련 질환 151.1일, 성대결절이 132.7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위수 순위도 뇌 관

련 질환, 간암 및 위암, 성대 결절 순이었다(표 7).

#### IV. 고 찰

2000년 3월 1일 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서울특별시교직원 및 교육공무원 중 공무상 요양급여 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는 551명이며, 그 중 남자는 301명(54.6%), 여자 250명(45.4%)이었다. 해외에서도 직업으로 인한 손상은 제한된 정보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Jackson, 2001; Plani et

<표 2> 5년간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발생 년도, 발생 시 근무상황, 발생 후 방문 진료과

구분	전체		남		여		X <sup>2</sup>	p	
	전체	(%)	대상자	(%)	대상자	(%)			
발생 년도	2000년 3월 - 2000년 12월	93	(16.9)	51	(16.9)	42	(16.8)	4.7	.45
	2001년 1월 - 2001년 12월	107	(19.4)	62	(20.6)	45	(18.0)		
	2002년 1월 - 2002년 12월	92	(16.7)	56	(18.6)	36	(14.4)		
	2003년 1월 - 2003년 12월	112	(20.3)	53	(17.6)	59	(23.6)		
	2004년 1월 - 2004년 12월	132	(24.0)	72	(23.9)	60	(24.0)		
	2005년 1월 - 2005년 2월	15	( 2.7)	7	( 2.3)	8	( 3.2)		
계	551	(100.)	301	(100.)	250	(100.)			
발생 시  근 무 상 황	고유업무 중 발생	314	(57.2)	196	(65.3)	118	(47.4)	35.8	.002
	교육훈련 중 발생	5	( 0.9)	0	( 0.0)	5	( 2.0)		
	당직 중 발생	5	( 0.9)	3	( 1.0)	2	( 0.8)		
	수업 중 발생	7	( 1.3)	4	( 1.3)	3	( 1.2)		
	일과 중 발생	1	( 0.2)	1	( 0.3)	0	( 0.0)		
	출장 중 발생	26	( 4.8)	12	( 4.0)	14	( 5.6)		
	출퇴근 중 발생	74	(13.5)	24	( 8.0)	50	(20.1)		
	행사 중 발생	115	(21.0)	60	(20.0)	55	(22.1)		
	환경정리 중 발생	2	( 0.4)	0	( 0.0)	2	( 0.8)		
계	549	(100.)	300	(100.)	249	(100.)			
발생 후  방 문 진 료 과	흉부외과	6	( 1.1)	2	( 0.7)	4	( 1.6)	41.8	.0001
	외과	6	( 1.1)	3	( 1.0)	3	( 1.2)		
	신경외과	42	( 7.6)	27	( 9.0)	15	( 6.0)		
	정형외과	418	(75.9)	227	(75.4)	191	(76.4)		
	구강외과	3	( 0.5)	3	( 1.0)	0	( 0.0)		
	성형외과	8	( 1.5)	6	( 2.0)	2	( 0.8)		
	이비인후과	14	( 2.5)	2	( 0.7)	12	( 4.8)		
	내과	21	( 3.0)	19	( 6.3)	2	( 0.8)		
	안과	7	( 1.3)	4	( 1.3)	3	( 1.2)		
	정신과	2	( 0.4)	2	( 0.7)	0	( 0.0)		
치과	22	( 4.0)	4	( 1.3)	18	( 7.2)			
기타	2	( 0.4)	2	( 0.7)	0	( 0.0)			
계	551	(100.)	301	(100.)	250	(100.)			

**<표 3> 연도별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건강문제 종류**

건강문제	성별	전체 n=443	년도				X <sup>2</sup>	p
			2001 n=107	2002 n=92	2003 n=112	2004 n=132		
건강문제의 종류								
사망	남자	8 (80.0)	2	1	2	3	1.1	.77
	여자	2 (20.0)	0	0	1	1		
	전체	10 (100.)	2	1	3	4		
폐질 <sup>1)</sup>	남자	2 (100.)	0	0	2	0	-	-
	여자	0 ( 0.0)	0	0	0	0		
	전체	2 (100.)	0	0	2	0		
질병·부상 <sup>2)</sup>	남자	65 (48.2)	13	18	10	24	8.2	.04
	여자	70 (51.9)	11	14	26	19		
	전체	135 (100.)	24	32	36	43		
단순부상	남자	157 (57.3)	44	35	37	41	1.9	.60
	여자	117 (42.7)	30	20	30	37		
	전체	274 (100.)	74	55	67	78		
질병	남자	11 (52.4)	3	2	2	4	0.01	.99
	여자	10 (47.6)	3	2	2	3		
	전체	21 (100.)	6	4	4	7		
폭행사	남자	0 ( 0.0)	0	-	-	-	-	-
	여자	1 (100.)	1	-	-	-		
	전체	1 (100.)	1	-	-	-		

1) 폐질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중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함.

2) 질병·부상 : 질병과 부상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함.

**<표 4> 4년간 공무상재해 사망자 특성**

년도	근무처	직급(위)	연령	성별	건강문제	근무상황
2001	초등학교	교사	60	남자	미상	고유업무
	초등학교	교장	61	남자	심장마비	고유업무
2002	고등학교	교사	49	남자	심폐정지	고유업무
	고등학교	기능직	42	여자	심폐정지	고유업무
2003	초등학교	교사	41	남자	간암	고유업무
	중학교	교사	37	남자	뇌출혈	기록부제
2004	초등학교	교사	61	남자	심장마비	행사
	초등학교	교사	56	여자	뇌경색	기록부제
	중학교	교감	56	남자	간암	고유업무
	본청	공무원	45	남자	뇌출혈	출근

<표 5> 연도별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의학적 진단별 빈도

요양급여시의 의학적 진단	성별	전체 n=443	2001 n=107	2002 n=92	2003 n=112	2004 n=132
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	남자	129 ( 62.0)	32 (76.2)	31 (68.9)	27 (45.8)	39 (62.9)
	여자	79 ( 38.0)	10 (23.8)	14 (31.1)	32 (54.2)	23 (37.1)
	전체	208 (100.0)	42 (100.0)	45 (100.0)	59 (100.0)	62 (100.0)
뇌졸중, 뇌진탕	남자	16 ( 45.7)	4 (50.0)	2 (50.0)	7 (58.3)	3 (27.3)
	여자	19 ( 54.3)	4 (50.0)	2 (50.0)	5 (41.7)	8 (72.7)
	전체	35 (100.0)	8 (100.0)	4 (100.0)	12 (100.0)	11 (100.0)
치과관련 질환	남자	4 ( 22.2)	1 (25.0)	0 ( 0.0)	2 (40.0)	1 (25.0)
	여자	14 ( 77.8)	3 (75.0)	5 (100.0)	3 (60.0)	3 (75.0)
	전체	18 (100.0)	4 (100.0)	5 (100.0)	5 (100.0)	4 (100.0)
심장마비, 부정맥, 심부전	남자	5 ( 83.3)	1 (100.0)	2 (100.0)	0 -	2 (100.0)
	여자	1 ( 16.7)	-	-	1 (100.0)	0 -
	전체	6 (100.0)	1 (100.0)	2 (100.0)	1 (100.0)	2 (100.0)
간암, 위암	남자	7 (100.0)	-	2 (100.0)	1 (100.0)	4 (100.0)
	여자	0 ( 0.0)	-	-	-	-
	전체	7 (100.0)	-	2 (100.0)	1 (100.0)	4 (100.0)
화상	남자	2 ( 33.3)	1 (50.0)	-	1 (50.0)	-
	여자	4 ( 66.7)	1 (50.0)	1 (100.0)	1 (50.0)	1 (100.0)
	전체	6 (100.0)	2 (100.0)	1 (100.0)	2 (100.0)	1 (100.0)
안과관련 질환	남자	4 ( 66.7)	1 (100.0)	0 ( 0.0)	1 (50.0)	2 (100.0)
	여자	2 ( 33.3)	-	1 (100.0)	1 (50.0)	-
	전체	6 (100.0)	1 (100.0)	1 (100.0)	2 (100.0)	2 (100.0)
성대결절	남자	0 ( 0.0)	-	-	-	-
	여자	3 (100.0)	-	-	-	3 (100.0)
	전체	3 (100.0)	-	-	-	3 (100.0)
정신과관련 질환	남자	1 (100.0)	-	-	-	1 (100.0)
	여자	0 ( 0.0)	-	-	-	-
	전체	1 (100.0)	-	-	-	1 (100.0)
기타	남자	13 ( 61.9)	2 (33.3)	4 (80.0)	5 (83.3)	2 (50.0)
	여자	8 ( 38.1)	4 (66.7)	1 (20.0)	1 (16.7)	2 (50.0)
	전체	21 (100.0)	6 (100.0)	5 (100.0)	6 (100.0)	4 (100.0)
X <sup>2</sup>		26.4	9.9	15.9	5.6	18.7
p		.002	.13	.003	.58	.03

al., 2003),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어 공무상 재해자의 특성과 건강문제의 종류 및 분포를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기반의 전략 제시 또한 한계가 있었다.

연도별 공무상요양급여제도의 이용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93명, 2001년도 107명, 2002년도 92명, 2003년도 112명, 2004년도 132명, 2005년도 15명이었

다. 그러나 연도별 요양급여 분석시점이 서로 다른 2000년과 2005년을 제외 한 후,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이용현황을 분석 해 볼 때, 2004년은 2001년에 비해 공무상 요양급여의 이용현황이 약 23.4%가 증가되었고, 2002년에 비해서는 43.5% 증가되었다.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내부 자료 발표 중 우리나라 전체 공무상요양제도 이용현황이 2000년에 3,312명에서 2001년 3,661명으로 10.5% 증가(김진수와 이

**<표 6>** 연도별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남녀별 대표 요양급여일수

구 분	요양급여일수							
	평균	±표준편차	t	p	중위수	최대	최소	
전체	남자(n=243)	113.3	±124.4	1.2	.22	60	730	3
	여자(n=200)	94.7	±96.5					5
2001년	남자(n= 62)	127.7	±127.3	-0.1	.92	91	730	5
	여자(n= 45)	130.1	±119.4					10
2002년	남자(n= 56)	89.0	±79.4	0.2	.87	60	361	9
	여자(n= 36)	85.9	±90.5					5
2003년	남자(n= 53)	98.3	±137.8	0.6	.56	60	730	10
	여자(n= 59)	85.7	±72.7					9
2004년	남자(n=72)	120.6	±138.5	1.4	.16	64	730	21
	여자(n=60)	91.2	±99.6					14

**<표 7>**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의학적 진단별 요양급여일수

건강문제	성별	요양급여일수						
		평균	±표준편차	t	p	중위수	최대	최소
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	남자(n=129)	99.1	±103.9	0.82	.42	60	730	10
	여자(n= 79)	87.3	±94.1					9
	소계(n=208)	94.6	±100.2					9
뇌졸중, 뇌진탕	남자(n= 14)	289.9	±274.4	1.69	.11	135	730	60
	여자(n= 18)	151.1	±158.2					14
	소계(n= 32)	211.8	±224.0					14
치과관련 질환	남자(n= 4)	90.8	±61.5	0.84	.04	60	183	60
	여자(n= 14)	70.1	±38.2					5
	소계(n= 18)	74.7	±43.2					5
심장마비, 부정맥, 심부전	남자(n= 3)	91	±1.73	-	-	90	93	90
	여자(n= 0)	-	-					-
	소계(n= 3)	91.0	±1.73					90
간암, 위암	남자(n= 7)	197.1	±242.0	-	-	117	730	34
	여자(n= 0)	-	-					-
	소계(n= 7)	197.1	±242.0					117
화상	남자(n= 2)	60	±0.0	-1.04	.38	60	60	60
	여자(n= 4)	113	±102.0					60
	소계(n= 6)	95.3	±83.6					60
안과관련	남자(n= 4)	75.5	±31.0	1.0	.39	60	122	60
	여자(n= 2)	60.0	±0.0					60
	소계(n= 6)	70.3	±25.3					60
성대결절	남자(n= 0)	-	-	-	-	-	-	-
	여자(n= 3)	132.7	±55.2					113
	소계(n= 3)	132.7	±55.2					113
정신	남자(n= 1)	90.0	±0.0	-	-	90	90	90
	여자(n= 0)	-	-					-
	소계(n= 1)	90.0	±0.0					90
기타	남자(n= 12)	86.8	±96.9	-0.73	.47	60	360	5
	여자(n= 8)	130.5	±170.6					80
	소계(n= 20)	104.3	±129.0					66



철수, 2004)한 것보다 높은 증가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국외의 경향과 다소 다른 추세를 보인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업무로 인한 재해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손상감시체계(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를 이용하여 직업 손상과 질병을 분석하였는데, 이 때 1998년의 손상자 3천6백만 명이 2003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CDC, 2001; CDC, 2006), 기타 사회보험 수령자도 국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거나 거의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진수와 이철수, 2004). 이는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급여 이용 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알기 위해 연령을 5세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남·여 모두 45-49세 때가 가장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전체 대상자 중 교장 10명(1.8%), 교감 14명(2.5%), 교사 365명(66.2%), 장학사 3명(0.5%)이었고, 그 외 기능직 130명(23.6%), 일반직 29명(5.3%)이 요양급여제도를 이용하였다. 근무처별로는 초등학교 314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3명(31.4%), 고등학교 30명(5.4%) 순이었다.

연도별로 대상자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의 자료(전체 443명, 남자 243명, 여자 200명)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4년간 공무로 사망한 대상자는 남자 8명, 여자 2명이었고 폐질은 남자 2명, 질병·부상은 135명, 단순부상은 274명이었다. 사망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연령별로는 60대 3명, 40대는 4명, 50대 2명, 30대 1명 순이었고,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2명, 2002년도에 1명, 2003년도에 3명, 2004년도에 4명이 사망하였다. 근무처별로 볼 때 초등학교 사망은 5명, 중학교는 2명, 고등학교 2명, 시교육청 1명 순이었고, 사망자 건강문제 분포를 보면 심장관련 사망이 4명으로 가장 많고, 뇌와 관련된 문제 3명, 간암 2명 순이었다. 사망자의 근무상황을 보면 고유업무 중 재해발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교직원 및 공무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상 사망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미리 찾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건강안내를 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요양급여를 받게 된 건강문제 발생 시 근무 상황을

보면, 고유업무 중 발생이 가장 많은 251명이었고, 비일상업무인 행사중 103명, 출·퇴근시 발생이 64명이었다. 특히 출·퇴근시 건강문제 발생은 전체 64명중 여자는 70.3%인 45명이었고, 남자는 29.7%인 19명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출·퇴근시 더욱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요양급여일수는 남자 평균 113.3일이고, 여자는 94.7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요양급여 승인시의 건강문제를 성별, 연도별로 분류하여 본 결과, 골절, 관절, 염좌, 디스크 등으로 요양급여가 승인된 대상자는 전체 443명중 208명(47%)으로 가장 많았고, 뇌졸중, 뇌진탕은 35명(7.9%), 치과질환 18명(4.1%), 심장 마비, 부정맥 등은 6명(1.4%), 화상 6명(1.4%), 안과관련 질환 6명(1.4%), 성대결절 3명(0.7%), 정신과관련 질환 1명(0.2%), 기타질환 21(4.7%)명이었다. 이처럼 요양급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주요건강문제가 주로 골절 및 염좌 등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이경중 등(1990)이 이미 산재대상자의 건강문제 분석에서 골격계 질환이 장기와 단기입원환자 모두에게 가장 많다는 것과 Cann 등(2008)의 연구에서 손에 대한 손상이 40%, 근골격계 문제가 42%인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따라 요양급여일수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요양급여일수가 많은 질환은 뇌졸중, 뇌진탕 등 뇌관련 질환으로 평균요양일수는 남자 289.9일 여자 151.1일이었고, 그 다음 간암 및 위암으로 요양일수 평균은 남자 197.1일, 성대결절이 여자 132.7일 순이었다.

따라서 교직원 공무상요양의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절 및 염좌 등의 근골격계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 할 것이며, 또한 요양급여일수 감소를 통한 전반적인 재정적 안정으로 뇌졸중 및 간암 등의 만성질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최고 장기요양급여기간인 730일 동안의 요양급여를 이용한 대상자가 본 연구에서는 7명이었는데, 공무원 연금 전국자료에서 730일 동안의 장기요양대상자는 1990년에 47명, 1995년에 61명, 2000년에 81명으로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3). 따

라서 향후 교직원 건강증진 측면에서 장기요양 대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작업과 관련한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직업군이나 근로자의 위험특성에 따라 손상이나 질병을 중재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해예방을 평가하기도 한다(Jackson, 2001). 또한 CDC(2006)는 업무와 관련된 손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목표와 중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직업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 시절 부터 업무에 대한 지식과 실천연습을 강화하고 있다(Nagai et al, 2007). 또한 Smith & Mustard 등(2007)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첫 해의 안전교육이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처럼 외국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업재해로 인한 손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증가되지 않는 추세이므로(CDC, 2001; CDC, 2006), 우리나라 학교보건체계에도 이들의 활동을 참고삼아 재해 감시체계 운영, 예방활동의 목표 수립과 예방, 동일 재해 방지 프로토콜 개발, 재해의 심각성과 대처요령 교육 등의 활동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요양급여제도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5개년 동안에 서울시 교직원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승인된 551명이다.

연구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상요양급여를 받은 대상자는 남자 301명, 여자 250명이었으며, 45세-49세의 연령에서 남, 여 각각 19.1%와 18.9%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공무상요양급여 발생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1년 107명, 2000년 92명, 2003년 112명, 2004년 132명으로 2004년의 이용대상자는 2001년에 비해 약 23.4%가 증가되었고, 2002년에 비해서는 43.5% 증가되었다.

근무처별로는 초등학교 314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3명(31.4%), 고등학교 30명(5.4%) 순

이었으며, 발생시점을 보면 57.2%가 고유업무 중, 21%가 행사 중, 13.5%가 출퇴근 중 발생하였다. 또 대상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진료과를 보면, 정형외과가 75.9%인 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가 7.6%인 42명, 치과가 4%인 22명 순이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양급여일수를 볼 때 각 년도 모두에서 성별 요양일수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으나, 동기간에 남자 8명, 여자 2명이 사망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건강문제들은 골절·관절관련 질환과 간암과 위암 등의 질환이었고, 여자에게서 더 많은 질환은 치과관련 질환, 화상 등 이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게 된 대상자 443명 중 부상(단순부상과 질병·부상)이 409명(92.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유업무상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중 56.7%이었다.

이처럼, 서울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요양급여 이용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부상이 요양급여 이용의 주요한 건강문제이며, 고유업무 수행 중에 많이 발생되므로 평상시 근무환경에서 부상의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직원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뿐 아니라 부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시설 보수, 사례소개, 안전사고 교육자료개발 및 교육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교직원의 공무상 사망이나 뇌관련 질환 및 간암 등의 장기요양 질환은 매 2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교직원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3). 공무원연금 실무(Online). Available:  
[http://www.geps.or.kr/n\\_appeal/index.jsp](http://www.geps.or.kr/n_appeal/index.jsp)(2008, December, 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a(2008).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Online). Available:  
[http://www.geps.or.kr/n\\_appeal/index.jsp](http://www.geps.or.kr/n_appeal/index.jsp)(2008, December, 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b(2008). 공무원연금 실무(Online). Available:  
[http://www.geps.or.kr/n\\_appeal/index.jsp](http://www.geps.or.kr/n_appeal/index.jsp)(2008,

- December, 1).
- 김수배(2005). 원무관리론. 서울 : 군자출판사, pp 193-303.
- 김진수, 이철수(2004). 공무원연금의 재해급여 체계 평가 및 개선과제. 사회보장연구, 20(2), 1-26.
- 공무원연금관리법(2008). 법제처 (Online). Available: <http://www.moleg.go.kr/main/main.do>(2008, December, 1)
- 이경중, 문영한, 차봉석(1990). 산재보험에 있어서 장·단기 입원환자의 진료비 비교. 대한산업의학회지, 2(1), 1-12.
- Cann, A.P., Baker, A.M., Hansen, A., Massie, D., & Vandervoort, A.A.(2008). A five year retrospective analysi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ncidence reported at a research intensive Canadian university. Work, 30(2), 171-184
- CDC(2001).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treated in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s-United States, 1998. MMWR Morb Mortal Wkly Rep. 50, 313-317.
- CDC(2006).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mong workers treated in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s-United States, 2003. MMWR Morb Mortal Wkly Rep, 55(16), 449-452.
- Jackson, L.L.(2001).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 treated in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Inj Prev, 7(suppl I), 121-126.
- Nagai, R., Lefèvre, A.M., Lefèvre, F., Steluti, J., Teixeira, L.R., Zinn, L.C., Soares, N.S., & Fischer, F.M.(2007). Knowledge and practices by adolescents in preventing occupational injuries: a qualitative study. Rev Saude Publica, 41(3), 404-411.
- Plani, F., Bowley, D.M., & Goosen, J.(2003). Death and injury on duty-a study of South African police officers. S Afr Med J. 93(11), 851-853.
- Smith, P.M., & Mustard, C.A..(2007). How many employees receive safety training during their first year of a new job?. Inj Prev, 13(1), 37-41.